

## V. 독 일

- FY 2008: 2008. 1 ~ 2008. 12
- 출처: Federal Ministry of Finance
  - Bundeshaushalt 2008, Finanzplan des Bundes 2007 bis 2011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
  - EU 집행위원회([http://ec.europa.eu/index\\_en.htm](http://ec.europa.eu/index_en.htm)), Eurostat([ec.europa.eu/eurostat](http://ec.europa.eu/eurostat)), OECD([www.oecd.org/](http://www.oecd.org/)), IMF([www.imf.org/](http://www.imf.org/)), IFO([www.ifo.de](http://www.ifo.de)), Kiel([www.ifw-kiel.de](http://www.ifw-kiel.de)), RWI Essen([www.rwi-essen.de](http://www.rwi-essen.de))
- 환율: 1유로 = 1,272.72원 (약 1.37 미국달러) (2007년도 평균)

### <요 약>

- ◇ 2008년 독일 경제는 유로화 강제로 인한 수출둔화 및 투자약화 등으로 성장 모멘텀 다소 약화
- ◇ 독일정부는 2011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이번 예산안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 2007년 VAT 인상 및 직접세입 증가, 인금과 고용상승에 따른 지불급여세(payroll tax) 증가 등 세입 증가로 재정상황은 대폭 개선 전망
  -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당초 독일정부의 전망보다 빠르게 2007년 흑자로 돌아설 전망(Ifo, Kiel, OECD, EU 집행위원회 등 전망)
- ◇ FY 2008 연방예산 및 중기재정계획 2007~2011은 재정건전화와 미래분야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작성
  - (재정건전화) 연방정부의 부채규모 감축 및 2011년까지 신규 부채 없는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
  - (미래분야 강화) 미래지향적 재정정책으로 교육 및 R&D 분야 예산 중점 지원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 2008년 독일 경제는 유로화 강세로 인한 수출둔화 및 투자약화 등으로 성장 모멘텀 다소 약화
  - 세계경기 둔화 및 유로화 강세 지속으로 무역의 성장기여도는 낮을 전망
  - 그러나 고용증가와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한 민간 소비지출 확대 등 내수가 경제성장을 뒷받침
  - VAT(부가가치세) 인상 여파는 감소할 전망이다, 이로 인한 기초 식품 가격 상승과 최근 원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은 2007년과 유사
    - 2007년 1월부터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여 「성장 및 안정성 조약(SGP)」 준수를 위해 표준 VAT 세율을 16%→19%로 인상
    - 이에 따라 2007년 2분기까지 민간소비가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VAT 인상 여파는 이후 회복 추세

<표 V-1> 독일 경제 주요지표 전망

(단위: %)

	독일 경제전망 그룹 <sup>1</sup>		OECD		IMF		EU 집행위원회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GDP 성장률	2.6	2.2	2.6	1.8	2.4	2.0	2.5	2.1
민간소비	-0.1	1.9	-0.2	1.8	-0.1	1.9	-0.1	2.0
실업률 <sup>2</sup>	8.7	7.9	6.4	5.7	6.5	6.3	8.1	7.7
CPI <sup>3</sup>	2.1	2.0	2.2	2.3	2.1	1.8	2.2	2.0

- 주: 1.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Munich[[www.ifo.de](http://www.ifo.de)]  
in co-operation with: Swiss Institute of Business Cycle Research(KOF),  
ETH Zurich [[www.kof.ethz.ch](http://www.kof.ethz.ch)],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www.ifw-kiel.de](http://www.ifw-kiel.de)], Hall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IWH)[[www.iwh-halle.de](http://www.iwh-halle.de)]  
in co-operation with: Macroeconomic Policy Institute(IMK), Hans Böckler  
Foundation[[www.imk-boeckler.de](http://www.imk-boeckler.de)], Austr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WIFO)  
[[www.wifo.ac.at](http://www.wifo.ac.at)], RWI Essen [[www.rwi-essen.de](http://www.rwi-essen.de)] for the medium-term forecast in  
co-operation with: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Vienna[[www.ihs.ac.at](http://www.ihs.ac.at)]  
2. OECD: 국민계정에 근거한 노동력 비율로 '07년 3분기 상향 조정된 데이터 미반영,  
EU 집행위원회: Eurostat 정의 사용  
3. OECD, IMF, EU 집행위원회: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4. GDP 대비 %

자료: 독일 경제전망 그룹(Autumn 2007 Joint Economic Forecast, 2007.10), OECD(Economic  
Outlook 82, 2007.12), IMF(World Economic Ouylook, 2007.10), EU 집행위원회  
(Economic Forecast Autumn 2007)

□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은 독일 경제에는 제한적인  
영향

○ 독일 건설부문과 주택가격은 약 15년간 상대적으로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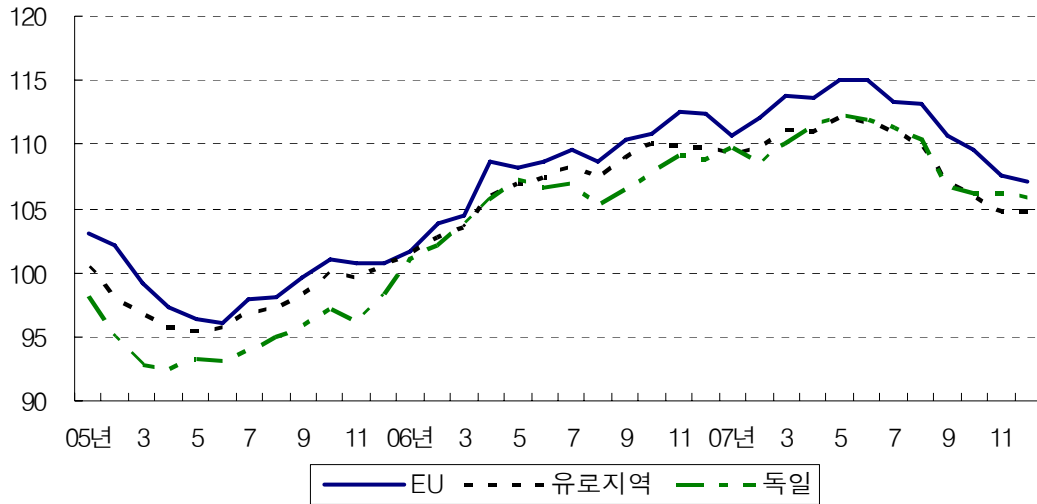
-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전년대비 %)

: (2001년) -1.9 → (2002년) -3.3 → (2003년) -2.0 → (2004년) -3.8  
→ (2005년) -2.0 → (2006년) -1.1 → (2007년 상반기) -0.6

-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소비 둔화 가능성은 없을 전망

○ 최근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지수(confidence indicator)가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평균치를 상회

[그림 V -1] 경기체감지수(ESI)\*



자료: European Commission, Business and Consumer Surveys time series

\* 경기체감지수(ESI): 설문조사에 의한 경기판단지수로, 산업(제조업), 서비스, 소매업, 건설부문 및 소비자 신뢰지수로 구성  
국가간 경기순환 비교와 EU 및 유로지역 경제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지표

- 다만, 미국 경제 성장 둔화, 고유가, 유로화 강세 및 신용경색 등이 독일 경제성장의 리스크 요인
  - 미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 및 유로화의 평가절상은 독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수출에 악영향
  - 고유가 및 기타 관련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민간 가계의 구매력을 제한할 우려
  -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손실보상을 위한 은행권의 금융비용 상승

## 나. 재정전망

### 1) 개관

- 최근의 경기 호조와 직접세의 견고한 증가, VAT 세율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입 등으로 재정상황은 대폭 개선
  - 2008년 재정차입금은 129억 유로로 2007년 대비 약 34% 감소한 수준
    - 이는 독일 통일 전 수준으로, 연방정부 총 지출의 4.6%(1973년 이후 최저 수준)
  - 재정차입금 및 구조적 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 2011년에는 신규차입\* 없는 균형재정 달성
    - \* 신규차입 또는 순차입(net borrowing)은 재정적자와 같은 의미(순차입이 (+)이면 재정적자, (-)이면 재정흑자를 나타내며, 영국, 독일 등에서 사용)

<표 V-2> 재정수입, 재정지출, 순차입 규모 전망

(단위: 10억 유로)

	수입	지출	순차입
2007	250.9	270.5	19.6
2008	270.3	283.2	12.9
2009	275.0	285.5	10.5
2010	282.5	288.5	6.0
2011	289.7	289.7	0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07 bis 2011, 2007. 8

### 2) 수입 · 지출 전망

- (재정지출) 2008년 연방정부 지출은 2,832억 유로로 2007년에 비해 4.7%\* 증가
  - \* 일회성 및 특별 지출 항목을 제외한 증가율은 1.9%

- R&D, 교육 및 과학 부문에 중점 지출
  - R&D 분야에 이번 연방하원의 임기기간인 2009년까지 60억 유로를 추가 투자하고, 2011년까지 2억 2,000만 유로를 또 다시 추가 배정
  - 2008년 예산안은 과학 및 R&D(대학 外) 부문에 68억 4,400만 유로 배정
- 2007~2011년 기간 동안 연간 지출 증가율은 약 1.7%
- (재정수입) 2008년 조세수입은 2,371억 유로로, 2007년보다 166억 초과한 규모(2007년 대비 7.5% 증가하여 재정지출 증가율을 상회)
  - 세입은 경제호조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2009년) 2,479억 유로 → (2010년) 2,526억 유로 → (2011년) 2,603억 유로
  - 2008년 신규차입은 129억 유로로 2007년 196억 유로에 비해 크게 감소 (2007년 대비 34% 감소)
- (신규투자) 2008년 신규투자는 243억 유로로 2007년에 비해 3억 유로 늘어난 수준이지만 2011년까지 점차 감소 전망
  - 2007년 이후 신규차입 규모가 투자지출액보다 낮아짐에 따라 독일 연방기본법 115조\* 준수 전망
    - \* 신용차입에 의한 수입은 예산안에 계상된 투자지출 총액을 넘을 수 없음

**<표 V-3> 연방정부 중기재정계획(2007~2011)**

(단위: 10억 유로)

	2006	2007 (추정치)	2008 (예산안)	Financial Plan		
				2009	2010	2011
<b>I. 재정지출</b>	261.0	270.5	283.2	285.5	288.5	289.7
전년대비 증가율(%)		3.6	4.7	0.8	1.1	0.4
<b>II. 재정수입</b>	261.0	270.5	283.2	285.5	288.5	289.7
조세 수입	203.9	220.5	237.1	247.9	252.6	260.3
세외 수입	29.2	30.4	33.2	27.1	30.0	29.4
신규차입 <sup>1</sup>	27.9	19.6	12.9	10.5	6.0	-
<b>III. 투자지출</b>	22.7	24.0	24.3	24.1	24.1	23.7

주: 1. 재정적자를 의미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07 bis 2011, 2007. 8

### 3) 독일정부 재정수지

- 2007년 VAT(부가가치세) 인상 및 직접세입 증가, 인금과 고용상승에 따른 지불급여세(payroll tax) 증가 등 세입 증가로 재정상황은 대폭 개선 전망
    -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당초 독일정부의 전망보다 빠르게 2007년 흑자로 돌아설 전망
    - 2008년 재정수지는 법인세 인하 영향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안정 및 성장 협약(SGP)\* 중 재정적자 비율은 준수될 전망
- \* 재정적자비율은 GDP 대비 3%, 정부부채비율은 GDP 대비 60% 이하유지

**<표 V-4> 기관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2007	2008	2009
독일 경제전망 그룹('07.10월)	0.1	0.3	-
Ifo('07.12월)	0.1	0.0	0.0
Kiel('07.12월)	0.1	-0.2	0.2
RWI Essen('07.12월)	0.1	-0.1	-
OECD('07.12월)	0.0	0.1	0.3
IMF('07.10월)	-0.2	-0.5	-0.5(2012년)
EU 집행위원회('07.가을)	0.1	-0.1	0.2

## 2. 예산기조 및 세부 예산수입 · 지출내역

### 가. 예산기조

- FY2008 연방예산 및 중기재정계획 2007~2011(Financial plan of the Federation 2007~2011)은 재정건전화와 미래분야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작성

#### 1) 재정건전화

- 연방정부는 FY 2011년 말까지 신규 부채 없는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
  - 독일정부의 부채는 1조 5,000억 유로(한화 약 1,909조원)규모이며,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이자로 연간 약 400억 유로(2008년 422억 유로) 지출
    - 400억 유로는 약 160만개의 유치원 또는 약 4,000km의 철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규모
    - 정부부채 규모는 안정 및 성장협약(SGP)의 정부부채 비율(GDP 대비 60% 이하)을 상회

<표 V-5> 정부부채 규모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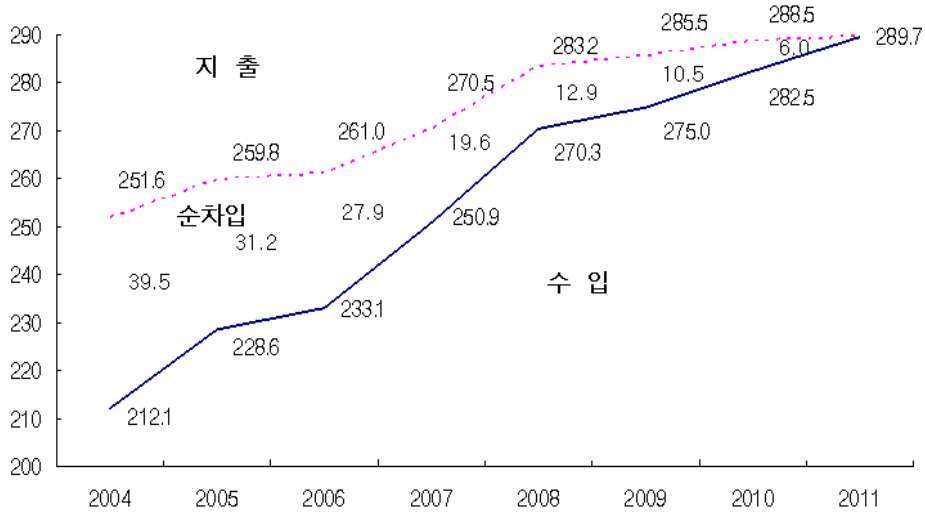
	2004	2005	2006	2007	2008
총부채	64.7	66.3	66.0	63.7	62.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7.10

- 독일정부는 최근 경제성장과 이로 인한 세입증가를 부채를 감소시킬 기회로 판단
  - 연방 재무장관은 2011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계획을 제출

[그림 V-2] 재정수입, 재정지출, 순차입 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10억 유로)



주: 2004~2006년 자료는 확정치이며, 2007~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07 bis 2011, 2007. 8

## 2) 미래지향적 재정정책

### □ 교육 및 R&D, 개발원조 분야 등 지원

- 교육 및 R&D 분야는 독일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연방정부가 최우선시 하는 부문
  - 2008년도 교육 및 R&D 분야 예산은 연구개발투자를 2010년까지 GDP의 3%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 ODA 예산은 매년 7억 5천만 유로, 학자금 대출로 매년 12억 4,200만 유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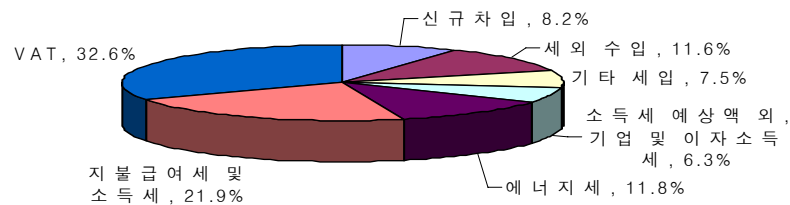
## 나. 세부 재정수입 · 지출내역

### 1) 재정수입 내역

- 2008년 조세수입은 최근의 경기호황에 따른 세입증대 기대가 반영되어 2,371억 유로 예상(2007년에 비해 166억 증가한 규모)
  - 2008년 세외 수입은 수수료, 사용료 등 행정수입(61억 유로)과 민영화 수입금(107억 유로), 연방고용청(BA) 분담액(50억 유로) 등으로 332억 유로 예상
  
- 2008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15%로 인하
  - 법인세 개혁으로 약 50억 유로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독일정부는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 기대

[그림 V-3] FY 2008 연방정부 재정수입 구조

총 재정수입 규모: 2,832억 유로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07 bis 2011, 2007. 8

## 2) 재정지출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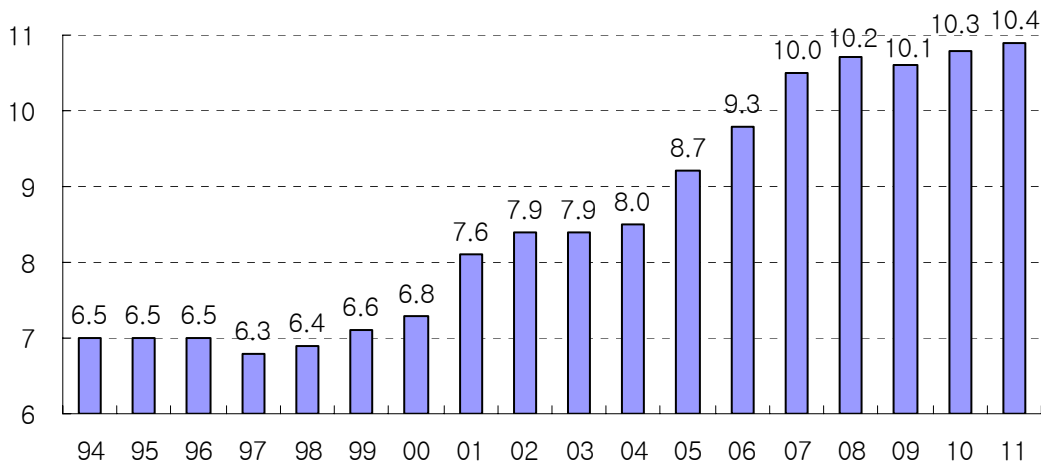
- 2008년 연방정부 재정지출은 2007년 대비 4.7%(약 127억 유로) 증가된 총 2,832억 유로로 편성
  - R&D·교육 및 과학부문, 개발원조, 치안 및 국제안보 분야에 집중 지원

### ① R&D·교육 및 과학부문

- 연구개발에 대해 현재 연방하원의 임기기간인 2009년까지 60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투자하고, 2011년까지 2억 2천만 유로를 다시 추가 배정
  - 2010년까지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를 3%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에 진일보
- 2008년 기후, 에너지, 환경분야 예방연구에 2007년 대비 16% 증가한 3억 3,600만 유로 이상이 지원 예정
- 2008년 의료 공학을 포함한 생명과학 분야에 2007년 대비 13% 증가한 4억 유로 이상 지원 예정

[그림 V-4] 연방교육연구부 교육 및 연구분야 지출

(단위: 10억 유로)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07 bis 2011, 2007. 8

## ② 개발원조, 치안 및 국제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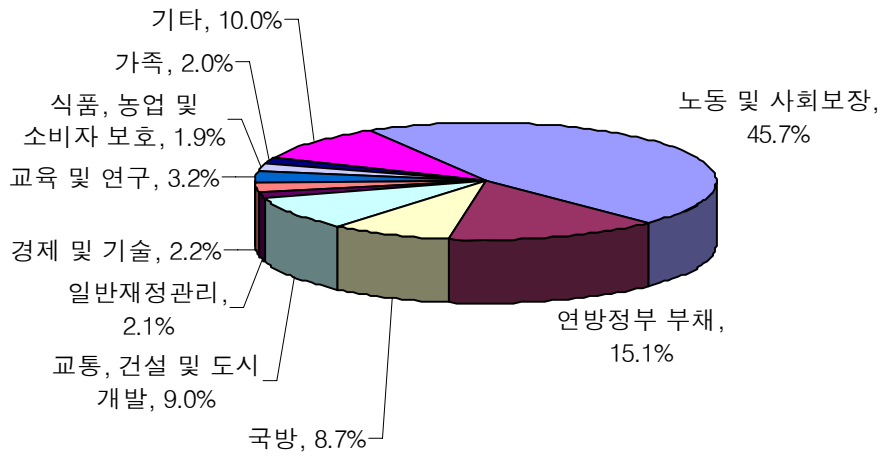
- 세계 5대 공적개발원조 지원국인 독일은 FY 2008 예산안에서도 ODA 예산으로 매년 7억 5천만 유로 지원
- 2008년 치안부문에 약 33억 유로를 배정하고, 그 중 연방경찰에 약 22억 유로 지원
- 국제적 테러리즘, 대량 살상무기 확산, 지역분쟁 및 조직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평화유지 목적으로 국방예산에 252억 3,900만 유로 배정

## ③ 사회보장

- 사회보장 지출은 연방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2008년 동 부문 예산은 약 1,408억 유로(연방정부 총 지출의 49.7%)
  - 연금보험 급여에 786억 유로, 노동부문 지원에 426억 유로 배정
- 독일정부는 과도한 복지지출 축소를 위한 조치를 꾸준히 실천
  - 슈레더 총리의 '하르츠 IV' 정책\*, 메르켈 정부의 장기 실직자의 실업급여 축소, 건강보험료 납입액 인상 추진 등
    - \* 실업수당과 영세민 보조금을 통합해 지원액을 대폭 줄이고 실업수당 수혜 자격을 크게 강화

[그림 V-5] 2008년 분야별 연방정부 지출

총 재정지출 규모: 2,832억 유로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07 bis 2011, 2007. 8

<표 V-6> 기능별 연방정부 지출 (2006-2011)

(단위: 백만 유로)

		추정치	예산안	Financial plan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	사회보장						
1.1	연금보험 급여	77,027	78,332	78,563	79,822	81,047	81,161
1.2	노동	38,871	42,735	42,607	40,646	39,523	38,685
1.3	가족지원	3,421	4,178	5,147	4,695	4,697	4,697
1.4	주택 공제	956	1,000	1,000	1,000	1,000	1,000
1.5	주택 장려금	500	436	442	446	608	525
1.6	전쟁 희생자 급여	2,829	2,610	2,368	2,202	2,036	1,870
1.7	나치 박해 희생자 배상 등	599	615	581	555	537	520
1.8	농촌지원	3,744	3,712	3,737	3,792	3,848	3,892
1.9	기타	8,290	6,084	6,352	7,889	9,352	10,842
2	국방						
2.1	국방	23,952	24,352	25,149	25,329	25,634	25,865
2.2	기타	80	99	90	85	83	83
3	식품, 농업 및 소비자 보호						
3.1	농업구조 개선 및 연안보호	612	615	615	615	615	615
3.2	기타 농업, 임업, 소비자 보호	408	482	534	462	449	434
4	경제발전						
4.1	에너지	1,980	2,349	2,387	2,330	2,152	2,006
4.2	기타 무역증진	496	553	590	586	570	579
4.3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기술증진	569	687	694	733	743	753
4.4	지역경제 발전	1,123	742	661	609	608	603
4.5	정부보증 및 경제발전 부문 기타	1,315	1,679	1,543	1,509	1,427	1,247
5	교통						
5.1	연방철도	9,269	9,412	9,178	9,565	9,608	9,718
5.2	연방국도	6,124	5,653	5,633	5,520	5,469	5,466
5.3	연방수로	1,553	1,668	1,748	1,792	1,791	1,790
5.4	지방정부 교통환경 개선	1,693	1,672	1,672	1,672	1,672	1,672
5.5	기타	1,370	1,762	1,680	1,677	1,543	1,499
6	건설						
6.1	주택 및 도시 개발	1,487	2,006	1,771	1,875	1,830	1,666
7	연구, 교육 및 과학, 문화사업						
7.1	과학, R&D(대학 외)	6,884	7,281	6,844	7,133	7,245	7,249
7.2	대학	1,080	1,382	1,592	1,715	1,840	1,839
7.3	보조금, 과학인재 육성	1,466	1,551	1,683	1,812	1,841	1,897

		추정치		예산안	Financial plan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7.4	직업훈련 및 기타	1,300	1,478	1,818	1,313	1,319	1,304
7.5	문화사업	1,416	1,497	1,587	1,586	1,526	1,500
8	환경	492	510	568	569	562	690
9	체육	126	108	125	125	127	127
10	치안 및 이민	3,464	3,570	3,729	3,670	3,670	3,666
11	경제 협력·개발	4,059	4,318	5,013	5,170	5,292	5,296
12	일반재정						
12.1	이자지출	37,525	39,346	42,189	43,165	44,971	45,452
12.2	연금급여	6,965	7,597	13,026	13,054	12,979	12,879
12.3	특별자산	-	180	620	700	660	580
12.4	신탁기관 운영	306	302	290	284	252	207
12.5	기타	7,693	8,420	9,299	9,516	9,377	9,823
12.6	세계잉여금 및 1.1~11에 계상되지 않은 금액	-	-473	74	285	0	6
	총 재정지출	261,044	270,500	283,199	285,503	288,503	289,703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07 bis 2011, 2007. 8